

Oral Assessment Criteria

영어회화능력 평가기준 “READI”에 관하여

본 교재에서 사용하는 영어회화능력 자기평가/동료평가의 일관된 기준인 약칭 “READI”는 영국 IATEFL, 캐나다 언어평가기준에 근거하여, 영어 구술 및 전반적 표현능력을 다음의 다섯 측면에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입니다.

1. **Range:** 지식범위 (문법의 정확성, 올바른 문장구조 및 시제사용, 단어/숙어를 포함한 어휘력 수준)
2. **Ease of Speech:** 회화의 유창함과 여유 (표현력의 느긋함과 유창함)
3. **Attitude:** 심리적 태도 (자신감, 의욕, 불안/긴장감의 해소 정도)
4. **Delivery:** 효과적인 이야기 투 (목소리 크기, 발음, 억양, 단어 강세, 언어의 리듬)
5. **Interaction:** 타인과의 교감 (능숙한 의사전달수단, 몸짓, 표정사용, 친근한 대화분위기 유도)

위의 기준에 따른 영어회화능력 평가표(pp. 269-271)에는 각각 0 에서 4 까지 평점이 부여됩니다. 각 점수 단계는 “READI” 기준이 의사소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는데, 각 요소 별 점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Range: 지식범위 (문법의 정확성, 올바른 문장구조 및 시제사용, 단어/숙어를 포함한 어휘력 수준)

<p>R (1): 어휘력의 부족으로 의사소통이 어렵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영어회화를 위한 기본 어휘(단어, 숙어)의 부족. ● 기초문법의 부재(문장구조, 동사의 시제 등). ● 지속된 의사전달이 불가능하다. 	<p>R (2):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력은 대체로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약간의 어휘력과 쉬운 구문사용으로 영어회화가 대체로 된다. ● 올바른 문법구조/시제 관리가 거의 안됨. ● 내용의 정확한 전달이 다소 어려움.
<p>R (3): 의사소통에 필요한 어휘력은 충분하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영어회화에 충분한 어휘력. ● 기본 문장구조 및 시제 통제가 다소 가능함. ● 실수는 있지만 의사전달은 지속된다. 	<p>R (4): 풍부한 어휘력으로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영어회화를 효과적이고 아주 쉽게 하기에 충분한 어휘력. ● 정확한 문법 및 시제 관리.

Ease of Speech: 회화의 유창함과 여유 (표현력의 느긋함과 유창함)

<p>E (1): 회화의 유창함이 부족해 의사소통이 어렵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말하기 전에 지연기간이 길다. ● 단어들을 자주 반복한다. ● 몸 동작-제스처에 의존한다. ● 한 단어나 두 세 단어들을 사용한다. ● 대화 연결이 안 된다. 	<p>E (2): 대체로 유창하게 의사소통은 유지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말을 멈추고 제스처에 의존한다. ● 개별 단어들이나 짧은 문장들을 사용한다. ● 단순한 질문과 대답은 할 수 있다. ● 대화 연결이 다소는 가능하다.
<p>E (3): 유창하게 의사소통이 유지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말하기 전에 다소 짧은 지연기간이 있다. ● WH-의문형을 묻고 대답할 수 있다. ● 대화 연결이 가능함 (연결접속사 사용). ● 실수는 있지만 의사전달은 지속된다. 	<p>E (4): 표현의 유창함으로 의사소통을 향상시킨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말하기 전에 지체함이 거의/전혀 없음. ● 다양한 단문들을 사용함. ● 분명하게 연결된 대화 (접속사들의 적절한 사용). ● 자연스러운 속도로 의사소통이 됨. ● 상당히 적절한 언어를 사용함.